

영호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토론회 ‘열기’

품자주자-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광주서 지난 17-18일 주제발표 등

충장축제 연계 주민자치 정책 공유

영·호남 시민단체가 광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토론회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9일 광주 시민단체 품자주자시민들(대표회장 서순복 조선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장준동 변호사)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양 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와 분임 토의를 열고 충장축제와 연계한 지역문화 현장 탐방 등도 진행했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임우진 품자주자시민들 상임고문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발전 과제’를 통해 주민자치 관련 법의 제도적 정비,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의 연계 통합,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등 실질적 주민자치로 자치 의식과 역량의 함양, 주민자치



광주 시민단체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토론회와 분임 토의를 열고 충장축제와 연계한 지역문화 현장 탐방 등도 진행했다.

를 저해하는 정치 환경 개선 등을 설명했다.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분권·교류 균형발전 정책과 향후 과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선언, 메가시티(광역연합) 구축으로 분권형 국정운영 체계 추진,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자치재정권 및 재정 조정,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지방대

학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이후 김용민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기 전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광동혁 전 부산시의원,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패널 4명의 열린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분임토의는 전체 회원을 7개 분임으로 나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회생 등을 과제로 분임 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유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임택 동구청장을 초청해 ‘마을만들기 활성화 강화회’를 열었으며, 인문도시 동구의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 사례 ‘푸른길 조성 사업’ 발표와 정책 비전 등이 이뤄졌다.

이 밖에 도심 속 푸른 숲 현장 견학, 충장축제 관람, 의재미술관·춘설헌 등 역사 문화유적을 탐방했다.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은 “지난해 부산권에 이어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주관한 이번 영호남 시민토론회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가 한층 더 성숙해 지기를 바란다”며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자주자시민들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023년 9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분권·균형발전 전략 및 시민주체 리더십 교류 연대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양 지역을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성학기자



KOMSA 목포지사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는 “최근 관내 선착장에서 어선 안전 강화와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를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어선을 방문해 홍보 스티커 부착 및 구명조끼 착용 인증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된 사진은 공단 공식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돼 대국민 홍보와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무천 목포지사장은 “구명조끼는 작은 장비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라며 “모든 어업인이 책임감을 갖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부산 학생의회, 5·18묘지 참배 등 교류 활동

광주와 부산 학생의회가 광주에서 교류 활동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광주-부산(부산-광주) 학생의회 의정활동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7일 열린 이번 교류는 양 지역 학생의회가 자치 역량과 협력의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학생의회가 광주를 방문해 60여명의 학생이 국립 5·18민주묘지와 담양 일대에서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정책

제안, 5·18민주묘지 참배, 체험활동 등을 하며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치 문화를 공유했다.

특히 학생의회 학생들은 ‘청소년 의정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의회 간 교류는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하고 협력의 가치를 배워가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다른 지역 학생자치와의 연대를 강화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재광완도군향우회, 광주서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전남도는 지난 18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재광완도군향우회 제13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향우 1천500여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진욱·민형배 국회의원,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도의원, 재광완도군향우회 읍·면향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1982년 설립된 재광완도군향우회는 12만명의 출향민으로 구성됐다. 명절 귀향 향우 대상 고

향사랑 실천과 인재육성장학금 조성 사업 등 고향사랑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완도인상 수여, 표창패와 장학금·효행상 수여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재광완도군향우회 제13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향우들의 변함없는 애향심과 협력은 전남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광양경제청-전남교통연수원 ‘교통안전 협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전남도교통연수원과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충곤 광양경제청장과 이병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협약은 최근 광양만권 산업물류 확대와 광양항 물동량 증가로 인해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교통연수원과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주시·市치과의사회, 무등산서 ‘구강건강 캠페인’

광주시는 19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 관리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구강건강 캠페인’을 열었다.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캠페인은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치과위생사협회, 5개 자치구 보건소, 지역 내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등이 함께 했다.

캠페인에서는 ▲구강 상담 및 구강 검사 ▲올바른 잇솔질 교육 ▲구취 측정 ▲치면세균



막 확인 ▲구강보조생용품(치실, 치간칫솔) 사용방법 교육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행복동행하우스 6호점’ 준공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의 뜻을 이어갔다.

19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조순가정의 지적장애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을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 6호점’으로 선정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열악했던 조순가정의 주거공간을 전면 보수해 실내 도배·장판·새시·LED 조명 교체와 욕상 방수, 외벽 보수 등 전반적인 환경



을 개선하고 책상·책장 등 가구를 직접 설치, 청소년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자립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방 체험 원데이 클래스를 가졌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 대한민국 SNS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담양군은 “최근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으로, 전국 공공기관·지자체·기업의 SNS 활용 역량과 국민 소통 수준을 종합 평가해 수여한다.

담양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군정 소식과 행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담양의 자연·관광·먹거리 등 지역 고유의 매력을 품고 있는 콘텐츠로 선보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명소와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 ‘담양구석구석’이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광지를 음악 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창의적 홍보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SNS는 군민과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담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공고 이스포츠팀 TGC ‘전국대회’ 2관왕

광주공업고등학교 이스포츠팀 ‘TGC’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19일 광주공고에 따르면 TGC팀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발로란트 프리미어 컨테너즈 리그와 앞서 9월26일 열린 스콜리그에서 우승했다.

대회에는 TGC팀 오승민(3학년) 주장과 신태환(3학년)·유수환·박강민·박태민(2학년) 선수 등 5명이 출전해 결승전에서 부산컴퓨터과학고 PCS팀을 2대0으로 꺾고 우승의 영예



를 안았다. /박선욱 기자